

중소기업 안전은 경영주의 경영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

이 선 호

(주)경기유지 공장장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안전문화 정착이니, 자율안전이니 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다. 정부의 정책 또한 자율안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자율안전은 거리감이 있다. 성공적인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주)경기유지의 이선호 공장장에게 중소기업의 올바른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주)경기유지는 어떤 기업인지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떠한 안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 리 회사는 1982년에 설립된 식용유 전문회사입니다. 옥수수유, 대두유, 채종유를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인 “Aromi”로 군납하고 있고, CJ에는 백선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러시아 등으로 옥수수 식용유를 수출하여 탄탄한 경기유지로 다지고 있고, 여기에는 안전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3정 5S가 있습니다. 박재현 사장님을 비롯해 임원님들과 주무부서장이 전 공정을 돌며, 매월 4차례에 걸쳐 정량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포상을 수여합니다.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유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중 소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경쟁력이나 자금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안전의 필요성보다 회사 경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각종 마스크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IMF 때보다 시장여건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회 여건속에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재해는 정부에서의 특별한 관리 체제가 없다면 감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안전관리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과 경영주가 여기에 투자하려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속에 노출이 되어도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모르고, 시정할 의지 또한 부족하여 결국 사고로 연결됩니다.

결국 사고는 불안전행동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전행동을 줄이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하는데, 그 중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율안전을 많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안전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바람직한 정부의 안전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안전수준을 볼 때 자율안전정책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을 담당하는 임원이 있을 만큼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은 법으로 단속을 하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법만 벗어나려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국내 산업구조에서 80% 이상이 중소기업임을 볼 때 자율안전 정책은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된 대기업에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보며, 저희 중소기업에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중소기업 안전점검은 단속을 위한 점검의 성격이 짙습니다. 아직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채찍이 앞선다면 안전은 법이 무서워서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이전에 계도의 완충기간을 두어 중소기업들이 차근차근 따라 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전 안전공단 지도원에서 우리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이 아닌 계도 차원에서 많은 것을 전달해 주고 갔습니다.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기술 및 정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여차원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경기유지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있어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유라도 있는지요.

우리 경기유지의 경영방침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품질, 환경, 안전사고 예방철저” 입니다. 이는 박재현 사장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최고경영자의 의지이고, 이 부분에 있어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많은 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되지 않은 포상비는 근로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비가 1,000만원을 넘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중소기업의 경영주도 이러한 마인드로 회사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종덕 기자〉